

재생이

 10월호
2022년

군산 도시재생 소식지



경암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4021 군산시 구영7길 129

T. 063. 442. 1166 ~ 7 E.mail. gscur@daum.net

재생 알림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2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3조)

●위치



도시재생小考

광역 지원센터에 거는 기대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송석기 센터장

전라북도와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경과와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민선 8기 새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있어서 적합한 도시재생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전라북도 관계 부서와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점과 어려움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선도지역뿐만 아니라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인 중앙동, 해신동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 관련 전라북도 부서와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 투입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정책 변화가 많은 중앙 정부의 정책이 갖는 단점을 광역 지자체가 보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선도지역과 올해 완료되는 중앙동과 같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중간지원조직이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표지사진

도시재생은 주민이 모여 함께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고, 처음에는 할 수 없었지만 역량을 키워 해나기도 하고, 전문가가 잘 살려낼 수 있도록 협조한다. 경암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자 창립총회를 열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나누기 위해 노력한 창립총회 준비위원회에 갈채를 보내며, 이후 주민협의체의 도시재생 활동을 기대한다. 경암동은 20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복합커뮤니티 거점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 도시재생 소식 2022.09.26.~ 10.15.



2022. 09.26. 월요일

째보선창협동조합 월례회의
째보스토리1899 1층



2022. 09.27. 화요일

경암동 역량강화교육
회현 모예의 정원



2022. 09.27. 화요일

전북도청 22년 도시재생사업 현장 행정
월명동 일대



2022. 09.27. 화요일

해신동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09.29. 목요일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 방문
중양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10.05. 수요일

손편지축제 품평회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



2022. 10.06. 목요일

전주 인후반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선진지견학
중양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



2022. 10.11. 화요일

소룡동 주민협의체 회의
소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10.11. 화요일

째보선창번영회 주민회의
째보스토리 1899 1층



2022. 10.12. 수요일

22년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 중간관리자 실무회의
째보스토리 1899 군산 비어포트



2022. 10.12. 수요일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중양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



2022. 10.15. 토요일

도시재생 광장마켓
구시청광장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경암동

군산시중앙동 주민자치센터를 보고, 듣다

경암동 주민역량강화교육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기은 팀장

10월 7일 경암동 주민들이 역량강화교육의 일환으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현장견학을 통해 경암동 생활SOC복합센터 시설에 대한 기대와 애정어린 제안을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설을 돌아보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공유주방과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화장실, 창고 시설 등에 큰 관심을 보였고, 꼼꼼한 질문과 함께 중앙동 센터 설계에 놓친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홍양숙 중앙동장 등 직원들이 주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박현자 경암동장도 주민들과 함께 견학에 동행했다.



도시재생활성화 월명동

주민주도 마을축제 컨설팅

월명동 주민역량강화교육 개강식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기은 팀장



월명동 마을축제 컨설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교육 개강식이 10월 5일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군산공예협동조합(최운정 이사장)이 운영하고 전주대학교 정충화교수, 다이룸 협동조합 김춘학 이사장, 청기와 함정훈 대표가 교육을 이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강사진들은 주민주도 마을축제를 위해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도 주민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며 협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20여 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군

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송석기 센터장은 “월명동의 주민주도 마을축제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충화 교수는 ‘축제에 대한 이해’ 특강을 통해 주민주도 마을축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해왔던 것, 하고 싶은 것, 잘 할 수 있는 것을 콘텐츠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는 수강생들의 마을축제에 대한 생각을 단체톡방에서 나누기로 약속했다.

도시재생뉴딜 **해신동**

굿바이! 스무살 군산시 수산물센터야!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준호 사무국장

2003년 5월 개장한 이래 스무살을 먹은 군산시 수산물센터가 해양수산물복합공간 신축건물 이전을 3개월 앞두고 지난 추석을 끝으로 상인들의 매장 이사와 더불어 철거에 들어갔다. 1층은 활어와 선어판매장으로 2층은 횃집으로, 센터 밖은 건어판매장으로 운영이 되며 군산 수산물시장의 만이 역할을 했던 곳이다. 철거되는 수산물센터 부지에는 해신동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경관주차장이 지어져 동백대교와 함께 금강하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경관이 펼쳐질 것이다. 신축되는 해산물복합 공간은 12월 완공 이전 예정이며, 해신동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함께 군산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다. 단지 스쳐 지나가는 군산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군산의 한축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해신동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체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해신동주민협의체가 2기 임원진 정도진 회장을 중심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회원 모집에 나섰다.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와 전단지 제작하여 배포했고, 회원가입 문의와 신청서 접수는 해신동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0월 4일에서 10월 18일까지 2주간이지만, 주민들의 참여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주민협의체의 주요 역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 및 사업실행 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 사업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주민참여 사업 발굴
-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체 신규회원 모집

모집기간 2022. 10. 4. ~10. 31.

모집대상

-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주민
-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생업, 학업을 이유로 지역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생활권자' 라 함)
- *생활권자: 해당 지역의 생활권 범위에 속하거나 기년, 단채, 사업세에서 활동하는 사람

주요역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 및 사업실행 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 사업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주민참여 사업 발굴
-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새항 2길 312 수산물특화단지 1층)

접수문의 010-4882-0017 (주민협의체 총무)
070-4647-0238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개요

-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해신동 1011-21 일원(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 인접)
- 면적: 사업면적 220,890㎡(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
- 기간: 2020~2024(5년간) ※'19.10.08 공모신청
- 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 도비 25억, 시비 75억)
- 사업내용: 혁신성장센터, 해산물가공센터 조성 등 25개 사업
- 사업목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해산물 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뉴딜 중앙동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만복래~ 태평연월

문화예술공동체 해오름 김희숙 대표

지난달 9월 27일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민공모사업으로 제2회 명월관 ‘소문만복래축제’-태평연월이 진행되었다.

문화예술공동체 해오름은 2018년 창단,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실험성과 독창성 있는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지역의 이야기를 통해 동네의 축제 마당을 야외무대의 특성에 맞는 레퍼토리를 구별해 개발하며 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기획하고 있다.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에서 문화재 선생님을 모셔 권번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흥춤을 함께 배웠으며 우리 가락 민요를 배우며 주민과 끈끈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이번 행사는 1부 동네 달촌책방을 운영하는 오은희님의 타로와 우리들의 일상이야기 타로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과 2부 권번춤인 흥춤, 우리 가락 민요, 장고, 가야금공연과 3부 주민공동체 놀이 농심줄로 축제의 마당을 펼쳤다.

공연 연습 공간을 제공해준 중앙동 주민센터와 사업기회를 제공해준 군산시 도시재생과와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경암동

경암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경암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임완빈 회장

경암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는 10월 4일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을 제정, 정관에 따라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2021년부터 1·2차 주민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이 2022년 2월 주민협의체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안)을 준비해왔고, 경암동 일대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경암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8월 22일부터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창립총회 참석자 28명으로 시작하지만 주민이면 언제든지 간단한 절차를 통해 회원으로 들어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군산시 경암동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가는 데 목적이 있으며,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를 구현,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잘 완료되고 마을사업체를 세우기 위한 전 단계의 주민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임원진 명단

회장 임완빈

부회장 김정순 노동식 전은희

재무국장 하정희

사무국장 김성훈

도시재생활성화 우체통거리



행복했고, 계속 행복해지는 추억을 만든 손편지축제

제5회 손편지축제 ‘행복’ -10.01(토) 우체통거리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 신상철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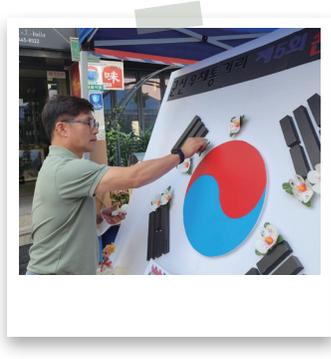


군산 우체통거리에서 10월1일(토) 제5회 손편지축제가 체험자 기준 3,5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손편지축제의 자라는 기획, 홍보, 실행, 결과평가 등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축제를 즐길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아이팀을 1년 내내 고민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 체험부스와 함께 친근한 공연자들이 주는 감동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축제를 운영하느라 즐길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아쉬움으로 꼽았으며 제6회 손편지축제에서는 주민도 흠뻑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손편지축제를 운영하는 우체통거리는 전국에서 수많은 견학단들이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새로운 창업자들이 계속해서 공가에 입점하고 있는 도시재생 마을입니다.





함께 알아가요!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의 성공 이유!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 신상철 부회장

1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안하고 스스로 운영하는 주민들의 재능기부 봉사

2

365일 즐길 수 있는 축제

- 캐릭터우체통과 마을경관 관리
 - 사진뷰로 적합한 아름다운 마을
 - 말하는 우체통(NFC&QR)의 지속적 업데이트
- 주민의 도움으로 우체통거리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손편지
 - 어린이 엽서쓰기 교육
 - 1년 뒤 배달되는 느린 편지(엽서)
 - 소원 엽서
 - 손편지쓰기 대회

3

우체통거리를 배경으로 찍은 내 모습이 담긴 나만의 우표 제작

4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강화된 주민역량으로 집행률 100% 기획력과 실행력 보유

5

주민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체통거리 마을사업

- 회원 전원 회비 납부와 주민 전원 참여에 의한 경관협정 체결과 운영
- 매주 수요일 주민회의와 마을 청소 지속 실시
- 회원 전원 참석하는 카카오톡방 운영으로 주민 소통과 거버넌스
 - 각종 마을현안 등 마을소식 공유, 매주 주민회의 결과 공지 및 주민의견 개선 등
- 주민 전원 동의로 도로명 주소 변경
 - 거석길, 중정길→우체통거리 1,2길
- 주민 전원 동의로 주정차 방지 겸용 대형 꽃박스 운영 및 개성을 담은 간판 개선

6

수많은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 선진지견학 내방객 유치와 경험을 나누려는 주민들의 노력

- 마을에 있는 주민 사업장에서 주민이 운영하는 강의와 질의응답
- 방문객과 주민의 상호 간접 교육 효과 및 관계 맺기

7

주민들 모두가 꾸준히 직·간접의 홍보활동

8

주민 리더그룹의 봉사와 역량 구축

- 발 행 일 2022년 10월 25일
- 발 행 인 송석기
- 발 행 처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기획·편집 김기은·정예슬

